



남구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준공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남구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준공식에 참석한 김병내 남구청장과 주민들이 산책로를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지역대학 상생TF 제 역할 못해

청년인재 유출 막지 (중)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대학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손잡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달리 지자체의 경우 대학과 교육청 고등행정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보니 대학 등 교육 유관기관의 참여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TF와는 별개로 교육청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관련 정책 등과 같은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상시 조직화와 동시에 업무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는 청년정책 대학발전협력단(이하 광주 TF), 전남도는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이하 전남 TF)을 구축했다.

지역내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대학 신입생 미달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 일부 대학 등이 팀을 꾸렸지만, 한시적인 프로젝트 팀인데다 고등교육 행정업무 등에 관여할 권한도 없어 대학 등의 참여도는 낮다.

실제 광주시청년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광주 TF에는 광주시교육청과 대학 등 직원 5명이 광주시에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현재 광주 TF팀에 참여 중인 대학은 관내 18개 대학 중 2곳 뿐이다. 초창기 광주 TF에는 대학 4곳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했지만, 올초 대학내 인력난 등의 이유로 대학 2곳이 광주 TF에서 나오면서 참여 대학이 줄었다.

시, 18곳 중 2곳만 참여...인력난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너지 효과와 지역대학 위기 대응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TF팀을 상시 조직화하고 업무통합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에 부서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 내에서도 대학위기와 청년정책 등의 업무에 대해 신규발굴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 교육 담당 부서 등이 별도로 있다"며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고등교육부터 청년일자리 관련 그리고 지역과 대학위기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통합부서기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교육청은 국가 사무에 속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역소멸위기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행정 권한이행 등에 공감대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지자체에 지방대학 행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뾰족한 방침은 없다"며 "그 뿐 아니라 교육행정과 재정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지자체에 이행해야 지역상황에 맞춰 위기 속 대학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등으로 연계해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수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 TF팀은 대학 매체 홍보, 대학R&D 지원, 신규사업 업무 등을 하고 있지만 시정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기업지원, 청년지원 등의 업무 등이 분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도 지역대학위기 대응을 위해 대학과 협력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체험 프로그램과 대학 홍보 등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너지 효과와 지역대학 위기 대응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TF팀을 상시 조직화하고 업무통합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에 부서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 내에서도 대학위기와 청년정책 등의 업무에 대해 신규발굴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 교육 담당 부서 등이 별도로 있다"며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고등교육부터 청년일자리 관련 그리고 지역과 대학위기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통합부서기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교육청은 국가 사무에 속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역소멸위기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행정 권한이행 등에 공감대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지자체에 지방대학 행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뾰족한 방침은 없다"며 "그 뿐 아니라 교육행정과 재정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지자체에 이행해야 지역상황에 맞춰 위기 속 대학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등으로 연계해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수월하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발효

나주·담양·구례 등 16개 시·군 고온다습공기 유입...당분간 계속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와 나주, 담양, 구례, 곡성, 장성, 화순, 고흥,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진도 1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급격한 체감온

도 상승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와 전남 지방의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9~29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겠고, 정체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내륙은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체감 온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일부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폭염영향예보를 참고해 보건과 농업, 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학비노조 “‘노조 우롱’ 이정선 교육감 규탄”

‘방학 중 급식지원’ 공약 비판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자의 ‘방학 중 급식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교육연수원 사령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은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당선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애초에 대화의 대상으로도 바라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교육감 인수위는 ‘학교급식 제공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노조에는 단 한 차례도 의견 개진 없이 노조의 항의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공약사항이니 도와달라’는 말 뿐이었다”면서 “연대회의는 공문을 통해 근로조

건 세부 변경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이 폐암으로 죽거나 후유증을 앓고 급식현장은 대체 인력도 없이 초고강도·저임금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약이고 정책이니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당선자의 태도는 광주교육을 책임질 교육자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노동조합을 교육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와 합의없이 추진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민주노총 “최저임금 460원 인상에 분노”

내일 전국노동자대회서 결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2%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월 201만 58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업법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사간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앵무새처럼 법정기

한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측의 주장과의 견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는 2일에 진행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앞)</p> <p>시세 -> 9억 급매가 -> 6억</p> <p>(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사,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td> </tr> <tr> <td></td> <td>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td> </tr> <tr> <td></td> <td>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td> </tr> <tr> <td></td> <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td> </tr> <tr> <td></td> <td>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td> </tr> <tr> <td></td> <td>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td> </tr> <tr> <td></td> <td>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td> </tr> <tr> <td></td> <td>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td> </tr> <tr> <td>시외</td> <td>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td> </tr> <tr> <td></td>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